

2016 년 가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교회의 실패와 교회의 하락과
교회 안의 이기는 이들과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단계들

메시지 11

교회의 회복

(3)

바울의 완결하는 사역의 중심 이상의 실재를 보고 그 안에서 삶

성경: 행 9:1-19, 22:6-16, 26:13-19

I. 바울의 완결하는 사역의 하늘에 속한 이상이 우리에게 본 바 되고 우리 안에서 매일 새로와 져야 한다—행 26:19, 엡 1:17, 잠 29:18 상

- A. 이 시대의 이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도록 지킬 것이다. 이 이상이 우리를 지키고 통제하고 우리에게 이 시대의 필요에 부응하라는 신성한 위임이 될 것이다—렘 1:7-10, 18-19, 사 6:1-8, 행 26:16-19.
- B.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이상을 보고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도록 하시는, 내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갈 1:15-16, 롬 15:16, 고전 15:10, 빌 2:13, 참고: 렘 1:1, 4-10, 18-19.
- C. 반대하던 사울은 그의 승리에 찬 복음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 행진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 정복 당한 포로가 되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릇들을 주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탁월하고도 놀랍다—행 26:14, 고후 2:14, 엡 4:7-12.

II. 다소의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하늘에 속한 이상이 그에게 왔고 그 이상이 그를 혁신시켰다—행 9:1-19, 22:6-16, 26:13-19.

- A. 그가 이상을 본 후 그는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무력하게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축복받은 눈 멀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만난 사람들에게 온다.
 - 1. 이 눈 멀이 우리에게 온 후, 내적 기름바름과 내적 빛남과 내적 빛비춤이 있게 된다.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 받도록 신약 사역의 잔치 안으로 이끌려 질 것이다—행 26:14, 롬 5:10, 고전 5:8, 참고 왕하 6:18-23.
 - 2. 내적 이상이 더욱 증가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식을 혁신시킬 것이다. 이 이상이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영에 의해 하도록, 즉 우리의 영 안에서 하도록 할 것이고, 몸 안에서 몸을 통해 몸을 위해 하도록 우리를 통제할 것이다—갈 5:25, 빌 3:3, 롬 1:9, 고전 12:12, 27.
- B. 삼일 동안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없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만 기도 뿐이었다—행 9:9, 11.
 - 1. 본질적 영의 직감 아래에서 그의 유일한 관심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다—행 22:14-15.
 - 2. 사울이 기도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이상과 계시가 잇달았을 것이다—골 2:2, 엡 3:4, 5:32.
 - 3. 사도행전 9 장에 기록된 바울의 이상에 대한 각각의 핵심 중점들이 우리에게 단지가르침에 되어서는 안되며,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으로 보는 이상이 되어야 한다.
- C. 우리가 사도 행전 9 장을 읽을 때, 우리는 다음의 세가지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다. 이 세가지는 ‘나’(4 절)와 ‘예수’(5 절)와 ‘선택된 그릇’(15 절)이다.

III.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행 9:4.

- A. 이것은 단체적인 ‘나’이며, 주 예수님과 그분의 모든 믿는 이로 이루어진다. 그분은 머리이며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한 인격, 즉 한 새사람이다—엡 2:15, 골 3:10-11.
- B. 사울(또한 바울)은 주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이들이 위대한 한 사람- 놀라운 ‘나’-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에게 온 우주 가운데 독특한 계시였다—행 13:9 상, 고전 12:12-27, 엡 3:3-4, 5:32.
- C. 바울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신약의 저자이다. 그가 돌이킬 때 단체적인 ‘나’, 즉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음으로 그는 몸을 크게 강조했다—롬 12:4-5, 고전 12:12-27, 엡 1:22-23, 2:16, 4:4, 16.
- D. 사울이 구원 받은 직후,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그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자신이 몸의 지체인 것을 본 사람들은 몸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지체들을 존중한다—행 9:6, 17-18, 24-25, 고전 12:23-24, 16:18.

IV. “주님, 누구십니까?”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행 9:5.

- A. 여기에서 ‘주님’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단어와 동일하다—출 3:14-15, 요 8:58.
- B. 예수라는 이름은 복음의 전체 메시지를 포함한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여호와 구주이신 것과 지금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신 것을 보았다—롬 9:5, 엡 1:19-23.
- C. 바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주님이 되시기 위해, 즉 몸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 과정을 거치시고 신성과 인성의 요소를 가지고 완결되었고, 그분의 모든 지체들 안으로 분배되시기 위해 생명 주시는 영, 즉 예수님의 영이 되신 하나님, 즉 여호와이신 것을 보았다—롬 10:12-13, 골 1:18 상, 고전 15:45 하, 행 16:7, 빌 1:19.
- D. 바울은 우주의 중심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 또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서 계시하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건축되어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그분의 살아 있는 몸이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 것 둘 다이라는 것을 보았다—갈 1:15-16, 2:20, 4:19, 롬 8:28-29, 12:1-5, 엡 1:22-23, 3:16-19.

V. “이 사람은…나에게 선택된 그릇이다”—행 9:15.

- A. 다소의 사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를 그분 자신으로 채워 그를 탁월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었다—골 1:25, 엡 3:8-9.
- B. 바울의 글들은 ‘그릇’이라는 단어의 영적 의미를 발전시킨다.
 - 1. 바울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그분으로 채워지기 위한 세부분으로 된 그릇이라는 것을 보았다—창 2:7, 살전 5:23-24, 롬 9:21, 23, 고후 4:7, 딤후 2:20-21, 참고: 왕하 4:1-6, 렘 48:11.
 - 2. 그리스도의 몸은 그분을 담고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으로 채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단체적인 그릇이다—엡 3:16-19.
- C.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릇으로서 바울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고난 받고,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스도 그분께로 돌이켜졌다—행 9:14-16, 22:16.

VI. 사도 바울의 완결하는 사역의 중심 이상은 우리의 내용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그릇’)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예수님’)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나’)이다—행 9:4-5, 15.

- A. 사도 행전에 있는 바울의 복음 전파와 그의 서신서들에 있는 글은 그가 본 하늘에 속한 이상에 대한 상세한 묘사이다—행 26:16, 22:15, 엡 3:3-6.
- B.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가 주님을 본 일과 장차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 주실 일에 대하여 그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행 26:16, 참고 1:8, 23:11, 20:20, 31.

- C. 바울은 그가 본 모든 이상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 일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실 일들을 다른이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갈 1:15-16, 행 22:14-15.

VII.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바울의 완결하는 사역의 중심 이상의 회복이다—행 26:13-19, 골 1:25, 엡 5:32.

A. 교회를 회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집을 건축하고 있다—엡 4:12-16, 요 2:19-21, 고전 3:9-12, 16-17, 딤후 3:15-16.

B. 교회의 회복은 왕국 생활을 세우는 것을 포함한다—롬 14:17.

1.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마 5:3.

a. 우리는 천국을 깨닫고 소유하기 위해 우리 사람의 영 안에서 가난해지고 비워지고 짐이 내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참고 19:13-15.

b.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하다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천국의 실재 안에 있고 왕국 시대에는 천국의 출현에 공동 참여할 것이다.

c.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겸손하게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것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갈 6:3, 요 15:5 하, 사 57:15, 66:1-2.

d. 우리는 자만과 과거의 일들로 만족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빌 3:13.

e. 영적 정체는 자신의 영적 부족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이다. 모든 실패와 쇠퇴는 자만의 결과이다—참고: 신 4:25, 회복역 각주 1.

f. 과거의 승리는 결코 우리의 오늘의 힘이 될 수 없다—참고: 수 7:3-4 (영어 회복역 각주 1), 9:14.

(1) 우리는 주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그분에 대한 새로운 이상이 없이 나아갈 수 없다—참고: 행 26:16, 빌 3:8 하, 10 상.

(2) 우리 자신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진보가 시작된다. 그럴때 하나님은 쉽게 우리 안에 그분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실 수 있으시다—참고: 대하 20:12.

(3)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더욱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더 깊이 파시며,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참고: 롬 8:28-29.

2.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마 5:8.

a.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방해받지 않으시고 자라실 수 있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단일하고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마 13:19-23.

b.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순수하다면, 우리의 보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일 것이다.

(1)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고후 3:18.

(2) 우리가 하나님을 더 볼 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미워하고 부인한다—욥 42:5-6.

c. 우리의 영적 진보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돌이킨 정도에 달려 있다—마 4:17, 고후 3:16—4:1, 참고: 왕하 23:25.